

## 라틴아메리카 식민시대 문헌 자료선 ①

## 아스테카의 ‘다섯 번째 태양’ 신화

원주민 정보제공자

## ❖ 해제

아스테카의 우주론에서는 지금까지 다섯 개의 태양이 있었다고 얘기한다. 여기서 태양이란 천체의 항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간 즉 시대를 의미한다. 아스테카인 멕시코로 이주한 시기는 13세기 중반이므로 그 이전에 존재하던 여러 문명의 흥망성쇠를 태양으로 본 것이다.

아무튼 1558년에 작성된 고문서 『다섯 태양의 전설』(Leyenda de los soles)에 따르면, 첫 번째 ‘땅의 태양’(또는 ‘재규어의 태양’)은 재규어에게 망했고, 두 번째 ‘바람의 태양’은 거센 돌풍에 사라졌고, 세 번째 ‘불의 태양’은 불 비에 없어졌으며, 네 번째 ‘물의 태양’은 홍수로 파탄했다. 그리고 아래에 소개하는 다섯 번째 태양이 생겨났다.

아스테카의 태양 신화는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 판본에 따라 어떤 요소는 삽입되고, 어떤 요소는 누락되고, 태양 창조와 관련된 신의 이름도 상이하나 전반적인 구성은 유사하다. 그 이유는 아스테카인이 그보다 앞선 마야, 미스테카, 테오티우아칸, 톨테카의 신화를 수용하여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역사를 문자 그대로 ‘창조’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섯 번째 태양 신화의 두 주인공도 재미있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먼저, 테쿠시스테카들은 ‘달팽이 집 거주자’라는 뜻으로 정착민을 상징하며, 자부심도 강하고 부유한 신이다. 반면에 나나우아친은 ‘종기투성이’라는 뜻으로 더럽고 가난한 이주민, 즉 북쪽에서 들어온 아스테카인을 상징한다. 나나우아친이 태양이 되고, 테쿠시스테카들이 달이 된 것은,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형국이다. 아스테카인이 선주민을 누르고 패권을 장악했다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스테카 태양 신화는 인신공희를 정당화하는 정치 담론이었다. 아래 번역문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모든 판본에서 다섯 번째 태양은 운행의 대가로 인간의 심장과 피를 요구한다. 이런 신화에 따라서 아스테카인은 포로로 잡아온 주변 종족의 심장을 봉헌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지배세력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했다.

현대인에게 아스테카 신화는 화석화된 유물이다. 원주민에게 구술로 전승되던 신화는 살아 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야기하는 시점의 시대와 환경에 맞게 새로운 요소가 끊임없이 첨가되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다. 따라서 여러 판본 가운데 어느 것이 원본이라거나 정보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려우며, 이야기에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

이 글의 출처는 베르나르디노 데 사아군(Bernardino de Sahagún, 1499~1590)이 채록하여 편찬한 『피렌체 고문서』(Códice Florentino) 제7권 제2장이다. 동일한 내용이 『마드리드 고문서』(Códice Matritense) 195면(folio)에도 실려 있다. 원문은 아스테카인이 사용하던 나우아어(語)를 알파벳으로 음차한 것이므로 사아군은 『누에바 에스파냐의 문물 일반사』 7권 2장에서 의미를 살려 스페인어로 번역해놓았다.

우리말로 옮길 때는 앙헬 마리아 가리바이(Angel María Garibay)의 스페인어 번역본, 미겔 레온 포르티야(Miguel León Portilla)의 스페인어 번역본 및 앤더슨과 디블의 『피렌체 고문서』 영역본을 참고하였으며, 구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사 어구의 반복도 가능한 살려놓았다.

#### 참고문헌

- Florescano, Enrique(1990), "Mito e historia en la memoria nahua", *Historia Mexicana*, 39, pp. 607-661.
- Garibay, Angel María(1961), *Llave del náhuatl, Colección de trozos clásicos*, Vol. I, México: Editorial Porrúa, pp. 131-135.
- Garza, Mercedes de la(1983), "Análisis comparativo de la Historia de los mexicanos por sus pinturas y la Leyenda de los soles", *Estudios de Cultura Náhuatl*, 16, pp. 123-134.
- History of the Mexicans as Told by Their Paintings*, translated and edited by Henry Phillips Jr.
- <http://www.famsi.org/research/christensen/pinturas/index.html#toc>
- Kockelman, Paul(1998), "Legend of the Suns: Reproducing the production of a Nahuatl text", *Estudios de Cultura Náhuatl*, 28, pp. 219-239.
- León Portilla, Miguel(ed)(1971), *De Teotihuacán a los aztecas: antología de fuentes e interpretaciones históricas*,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p. 57-62.
- Sahagún, Bernardino de(1829), *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la Nueva España*, Vol. 2, México: Imprenta del ciudadano Alejandro Valdés, calle de Santo Domingo y esquina de Tacuba, pp. 245-250.
- \_\_\_\_\_ (1953), *Florentine Codex: General History of the Things of New Spain*, Vol. 7, translated and edited by Arthur J. O. Anderson and Charles E. Dibble, Santa Fe(New Mexico): Th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and The University of Utah, pp. 4-8.

전해오는 얘기로는, 아직 밤이었을 때, 아직 태양이 뜨지 않았을 때, 아직 동이 트지 않았을 때, 신들이 한데 모였다고 한다. 저기 테오티우아칸(Teotihuacán)에서 신들이 회합하여 서로 얘기했다고 한다.

“신들이여, 어서들 오십시오. 어느 분이 짐을 떠맡겠습니까? 어느 분이 나서서 태양이 뜨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새벽을 만들겠습니까?”

그러자 저기서 누군가 말했다. 테쿠시스테카틀이<sup>1)</sup> 나서서 말했다. “신들이시여!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신들이 말했다. “다른 신은 안계십니까?”

그러자 신들은 서로 쳐다봤다. 서로 얼굴을 보며 말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하나같이 두려운 기색을 보이며 몸을 사렸다.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나나우아친도<sup>2)</sup> 다른 신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얘기를 듣고만 있었다. 신들은 나나우아친을 지목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나나우아친, 당신이 하시오!”

나나우아친은 그 명령을 따랐다. 기꺼이 그 명령을 받들고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여러 신들께서 저에게 좋은 일을 시키셨습니다.”

곧바로 두 신은 고행에 들어갔다. 테쿠시스테카틀과 나나우아친은 나흘 동안 단식했다.

그 즉시 불을 피웠다. 저기서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신들은 그 모닥불을 ‘신성한 바위’(teotexcalli)라고 불렀다.

테쿠시스테카틀이 가진 것은 모두 귀한 것이었다. 전나무 가지는 케찰 깃털이었고, 풀잎 공은 금이었고, 가시는 옥이었다. 피 묻은 가시와 핏방울은 산호였고, 향도 최상품이었다. 그러나 나나우아친의 전나무 가지는 푸른 풀잎이었다. 새 손을 한 줍씩 묶은 다발로 모두 아홉 개였다.

1) 테쿠시스테카틀(Tecuciztécatl)은 테쿠시스테칼(Tecuciztecal)이나 테시테카틀(Tecciztecatl)로도 표기한다.

2) 나나우아친(Nanahuatzin)은 나나우아틀(Nanáhuatl)로도 표기한다.

풀잎 공은 마른 솔잎으로 만들었고, 가시는 진짜 선인장 가시였고, 가시에 묻은 피는 진짜 피였고, 향은 아픈 상처에서 뜯어낸 것이었다. 두 신에게 각각 언덕을 만들어줬다. 그 곳에서 두 신은 나흘 밤을 고행하며 머물렀다. 지금 사람들은 그 산을 피라미드라고 부른다. 태양 피라미드와 달 피라미드라고 얘기한다.

나흘이 지났을 때, 고행이 끝났을 때, 두 신은 땅으로 전나무 가지를 던지고, 고행에 사용한 모든 물건을 던졌다. 이로써 고행을 끝냈는데, 때는 아직도 밤이었으니 각자 소임을 완수해야 했다. 신이 되어야 했다.

이윽고 한밤중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두 신을 단장해주었다.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해주었다. 테쿠시스테카틀에게는 원뿔 모양의 백로 깃털 모자와 조끼를 주었지만, 나나우아친에게는 종이만 주었다. 종으로 머리를 감쌌기에 종이 머리칼이라고 부르며, 머리띠도 종으로 만들었고, 아랫도리 가리개도 종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밤중이 되자 모든 신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았다. '신성한 바위'라고 부르는 이 모닥불은 나흘 동안 타오르고 있었다. 신들은 양쪽으로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중간에 두 신이 있었다. 테쿠시스테카틀이라고 부르는 신과 나나우아친이라고 부르는 신이 서 있었다. 모닥불을 정면으로 보고 서있었다.

그 때 신들이 명했다. 테쿠시스테카틀에게 명했다. "테쿠시스테카틀, 이제 뛰어드시오, 불 속으로 몸을 던지시오."

테쿠시스테카틀은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그러나 열기가 몸에



아스테카의 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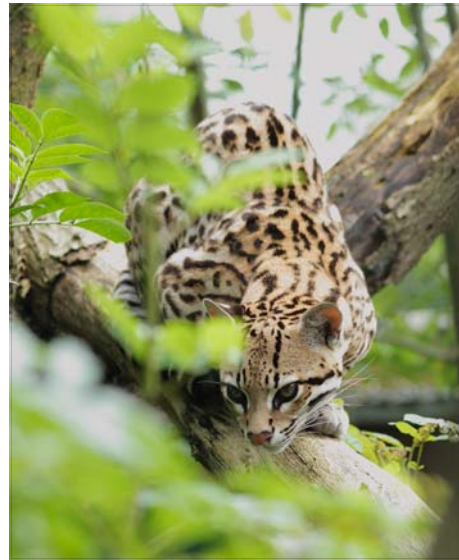
닿자 견딜 수가 없었고, 참을 수가 없었고, 버틸 수가 없었다. 모닥불이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불꽃이 널름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숯이 별경계 달아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쳐다보기만 해도 무서웠기 때문에 테쿠시스테카틀 신은 중간에서 멈췄다. 뒤쪽으로 물러났다. 뒷걸음쳤다. 다시 한 번 몸을 던지려고 안간힘을 썼다. 대변에 뛰어들려고 했다. 불속으로 몸을 던지려고 했다. 그러나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무리 해도 뜨거운 열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뒷걸음칠 수밖에 없었다. 콩무니를 빼는 수밖에 없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네 번 시도했으나 불 속으로 뛰어들지 못했다. 네 번 명했기에 테쿠시스테카틀은 네 번 시도했다.

신들은 나나우아친에게 소리쳤다. 그 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당신이오. 당신이 하는 게 낫겠소. 나나우아친, 서두르시오.”

나나우아친은 단번에 일을 끝내려고 했다. 단단히 마음먹고, 무섭지 않도록 눈을 감았다. 도중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뒷걸음치지 않았다. 곧바로 몸을 던졌다. 불 속으로 대변에 뛰어들었다. 그 즉시 불에 탔다. 타닥거리는 소리가 났다. 치지직하며 살이 타는 소리가 났다.

테쿠시스테카틀은 불에 타고 있는 나나우아친을 보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테쿠시스테카틀도 곧바로 불에 탔다.

전해오는 얘기로는, 그때 독수리도 두 신을 뒤따랐다. 갑자기 불 속으로 날아들었다. 아직도 타고 있는 모닥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독수리 깃털은 시커멓다. 불에 탄 자국이다. 오실롯<sup>3)</sup> 역시 몸을 던졌다.



오실롯

3) ‘재규어’ 또는 ‘호랑이’로 번역하기도 한다.

모닥불이 약해졌을 때 뛰어들어 여기저기가 불에 그슬렸다. 중간중간 탔다. 새까맣게 타지는 않았다. 그래서 얼룩덜룩하니 검은 반점이 생겼다. 검은 점이 흩뿌려져 있다.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말이 생겼다. 이렇게 말한다. 대장 같은 용감한 남자를 가리켜 독수리오실롯(quauhtlocelotl)라고 부른다.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독수리가 맨 처음이기 때문이다. 맨 처음 불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오실롯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둘을 함께 불리 독수리오실롯이라고 한다. 오실롯이 나중에 불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아무튼 두 신은 불 속으로 뛰어들자마자 전부 타버렸다. 다른 신들은 나나우아친이 어디론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맨 처음 불로 뛰어 들었으므로 태양이 될 것이다. 새벽이 될 것이다.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신들이 한참 기다렸을 때,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사방이 여명으로, 밝은 빛으로 휩싸였다. 전하는 얘기로, 신들은 무릎을 꿇고 태양이 된 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신들의 말이나 의견은 제각각이었다. 하는 말마다 각기 달랐다. 몇몇 신은 북쪽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은 서쪽이라고 생각해서 서쪽을 바라보고, 몇몇은 남쪽이라고 생각해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밝은 빛이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방을 지목했다.

그러나 몇몇은 여전히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틀림없이 이쪽이다. 태양은 이쪽으로 나올 것이다.” 그곳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신들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곳을 바라보고 있던 신들의 이름은 케찰코아틀(Quetzalcóatl), 다른 이름으로는 에에카틀(Ehécatl)이고, 토텍(Totec), 다시 말해서 아나우아틀리테쿠(Anahuatlitecu)이고, 붉은 테스카틀리포카(Tezcatlipoca)이고, 셀 수 없이 많은 미믹스코아(Mimixcoa)이다. 여신 네 명도 있었다. 그 이름은 티아카판(Tiacapan), 테이쿠(Teicu), 틀라코예우아(Tlacoyehua), 쇼코이오틀(Xocóyotl)이다.

태양이 떠올랐을 때, 붉은색을 칠한 것처럼 정면에 나타났을 때, 이리저리 뿔내고 있었다.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얼마나 밝은지 눈이 아팠다. 사방으로 햇볕이 쏟아졌고, 열기가 사방으로 스며들었다.

그 다음에 테쿠시스테카들이 떠올랐다. 같은 곳에서, 태양이 떠오른 곳 바로 옆에서 나왔다. 모닥불에 뛰어든 순서대로 차례차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에게 따르면, 환한 빛은 동일했다. 신들이 보기에 빛이 동일하였으므로 다시 모여서 이야기했다. “신들이시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둘이 앞뒤로 나란히 다니지 않을까요? 저 둘이 똑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신들은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이윽고 어느 신이 달려 나와 토끼로 테쿠시스테카들의 얼굴을 때렸다.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졌고,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인다.

이리하여 둘이 함께 나타났는데,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가만히 머물러있었다. 그래서 신들이 다시 얘기했다. “우리보다 어찌 살라고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우리에게 일반인과 뒤섞여 살라는 것인가? 우리 노력으로 태양이 다시 살아나고 번성하였거늘,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구나.”

에에카들이 임무를 수행하려는 순간이었다. 신들을 죽이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솔로틀은<sup>4)</sup> 죽고 싶지 않았다. 솔로틀이 신들에게 말했다. “신들이시여,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펄펄 울었다. 눈이 툭툭 부어올랐다. 눈꺼풀도 부어올랐다.

그러나 죽음이 솔로틀에게 다가오자 면전에서 도망갔다. 푸른 옥수수밭으로 뛰어들어 모습을 감췄다. 옥수수대 모양을 취했다. 옥수수대로 변

4) 솔로틀(Xólotl)은 ‘둘’, ‘이중’이라는 뜻이다.

했다. 이렇게 한 뿌리에서 두 대가 올라오는 옥수수를 농부들은 솔로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옥수수밭에서 들켰다. 다시 도망쳐, 선인장 사이로 들어갔다. 이번에도 선인장으로 변해 두 개가 되었는데, 이런 선인장을 메솔로틀(mexólotl)이라고 부른다. 또 다시 들켰다. 그러자 물속으로 들어가 아솔로틀(axólotl)로<sup>5)</sup> 변했다. 그렇지만 거기서 붙잡혀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신이 죽었는데도 태양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소임을 다 하려면 길을 떠나야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 에에카틀은 바람을 모아서 힘껏 밀었다. 바람으로 격렬하게 밀어붙였다. 그러자 움직였다. 이렇게 해서 계속 길을 따라가고 있다. 태양은 행로를 따라갔는데, 달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태양이 나타난 뒤에 달이 나타났다. 그래서 서로 떨어지게 된 것이었다. 나타날 때 각자 경로가 달랐다. 태양은 낮에 일하는데, 달은 밤에 맡은 일을 한다. 매일 밤 떠올라서 밤에 일한다.

이때까지 보았듯이, 저 달 테쿠시스테카틀이 먼저 불속으로 뛰어들었다면 태양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제일 먼저 나섰고, 귀한 물건으로 고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신화는 끝난다. 아주 오래전부터 노인들이 간직하고 있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끝난다.

[박병규 해제 및 번역]

---

박병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

5) 아홀로테(ajolote)로 표기하기도 한다.